







**발행일**  
2022년 12월, 통권 5호

**발행인**  
김태경

**발행처**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김태경, 임자영, 이양훈, 이승연)  
www.resmile.or.kr

**편집디자인/인쇄**  
(주)디자인위드 www.designwith.co.kr

## Contents

### 02 여는 글

### 04 인사말

### 06 스마일 칼럼 트라우마 바로 알기

### 08 우리 센터를 소개합니다 ① 수원스마일센터 우리 센터를 소개합니다 ② 목포스마일센터 우리 센터를 소개합니다 ③ 전주스마일센터

### 20 각 센터가 추천하는 지역 명소 및 맛집 나만의 '힐링 지역 명소'

### 26 자유기고 ① 길고 긴 회복의 시간, 내가 웃을 수 있게 되기까지 자유기고 ② 단단한 위로가 되어준 책 속의 문장들

### 30 제주 서포터즈 탐방 ① 고치가게 제주 서포터즈 탐방 ② 스마일리 제주 서포터즈 탐방 ③ 위더스 제주 서포터즈 탐방 ④ 위로

### 36 힐링 북스 ① 용서하지 않을 권리 힐링 북스 ② 마음은 괜찮냐고 시가 물었다

### 40 학술 심포지엄 제7회 스마일센터 연례학술 심포지엄

### 44 따뜻한 법률상담소 기본 법률 정보 및 관련 재판 용어

### 47 스마일센터 소식 스마일 가득한 날

### 63 총괄지원단 소식, 스마일센터 이용 가이드

### 65 전국 스마일센터 이용 안내



## 다시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스마일센터가 함께할게요.



그림 고ㅇㅇ님 작품

우리 모두는 아름답게 피어난 꽃이에요.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꽃들 중에서 다양한 아픔을 가진 꽃도 있지요.  
아픔을 가진 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이겨내고자 스마일센터라는 꽃밭에 찾아가요.  
스마일센터의 꽃밭에는 상처가 나거나 찢어지거나 시들기도 한 다양한 꽃들이 모여 있어요.  
스마일센터 꽃밭에 찾아온 꽃들을 위해 사회복지사분들께서는 밝은 미소를 띠며 다가가서  
여러 가지의 거름(응원, 상담, 도움, 행복, 웃음 등)을 계속 제공해 주지요.

꽃들은 따뜻한 온기가 가득 담긴 거름을 통해서  
점차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웃음을 되찾으며  
예쁜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 다시 웃는 내일을 위해, 2023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을 되돌아보면 무탈하길 바랐던 새해 소망이 무색하게도 여지 없이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진행돼 분주한 한 해였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하여 전 국민이 애도하였고, 빵공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공분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는 2020년 3월 팬데믹 선언 이후로 2년이 넘게 흘렀으나 아직도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고 찾아들었다가도 다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도가 집중되는 강력사건 이외에도 살인, 강도, 방화, 폭행, 성폭력 등의 사건 피해자 지원의 최전방에 스마일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센터를 묵묵히 지키는 142명의 스마일센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매해 스마일센터를 방문하는 피해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21년 약 2700여 명의 범죄피해자들과 함께 울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김태경

드러내 놓고 하소연하기 힘든 사연을 듣고, 입에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죄책감이 느껴지는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부단히 전문성을 쌓고, 피해자에게 공감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수련을 하며,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은 지역 스마일센터가 원활히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웃기 Vol 5를 발간하며 스마일센터 직원들의 노고와 피해자들을 향한 위로가 소식지에 잘 담기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회복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길 가운데서, 다시 웃는 내일을 위해 지역 스마일센터와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스마일 칼럼

# 피해자와 함께하는 법, 트라우마 바로 알기

심각한 정신적 외상(보통 트라우마라고 일컫는다)을 겪고 나서 특징적인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한다. 스마일센터나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러한 정신장애를 일상 속에서 매일 접하게 된다. 트라우마에 압도당하는 피해자를 돕는 분들에게 임상 경험과 교육을 통해 얻은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니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첫째,** 어떤 사건이 트라우마가 될까? 이 부분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다. 즉 어떤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사건들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만, 명백하게 트라우마가 될 만한 사건들은 전쟁, 아동기의 학대 경험(신체적, 성적 학대, 방치), 폭력의 경험이나 목격, 성폭력, 심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등이다. 즉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는 트라우마를 겪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흔히 생각하는 정도보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셋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핵심적인 증상들은 트라우마를 일으킨 사건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기억에 떠오른다는 점이다. 아니면 꿈속에서 트라우마 사건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증상은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증상이어서 트라우마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극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회피하게 된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술에 의지하거나 마치 별일 없던 것처럼 일에 몰두하기도 하며, 트라우마와 관련된 대화를 회피하거나 트라우마를 연상할 수 있는 TV나 동영상 등을 안 보고 회피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난다.

지나치게 각성 상태가 증가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늘 경계태세를 취하는 상태가 되며 극도로 민감해지기도 한다. 이 상태에 이르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정신적으로 멍한 느낌 혹은 텅 빈 느낌을 받는다. 상당히 오랫동안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 외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피로감, 감정반응이 무디어지는 현상, 다양한 신체질환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증상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일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2차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피해자 지원 시 유의해야 한다. 트라우마 사건을 겪고 나면 심한 수치심,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무너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는 식으로 언질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피해자 지원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다섯째,** 흔히 피해자들은 결론론적인 생각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예를 들어 “내가 그 시간에 그곳에(사건이 일어났던

곳) 가지 않았다면 그런 사건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하고 자책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또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등의 답이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하는 경우를 본다. 이런 생각의 구조는 결국 자신을 책망하는 결과만을 낳게 되고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소이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고 혹은 사건이 일어났을 뿐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트라우마는 정신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신체)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몸 상태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곱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물리적인 상실(범죄나 사고에 의한 신체적 손상,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포함)이나 정신적 상실(타인과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의 상실, 자존감의 상실, 안전감의 상실)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 상실은 필연적으로 깊은 슬픔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자.

정영기  
정신과 전문의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 우리센터를 소개합니다

①

# 수원스마일센터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다

2016년 12월에 개소한 수원스마일센터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내담자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여 경기 남부 지역의 든든한 지원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센터의 모두가 진심을 다해 센터를 끌어가고 있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사진 김수영



경기 남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수원스마일센터(이하 센터)는 많은 내담자와 함께하고 있다. 그간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탄탄히 다져온 전문성을 자랑하는 센터는 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내담자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고민과 훈련을 거듭하며 내담자와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있다.

## 적극적인 자원 활용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매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아주대학교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재성 센터장은 지역사회 사업을 맡는 것이 대학의 책무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지역사회 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런 그는 센터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뽑았다.

“지역사회 사업은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지원 말고도 가능한 모든 것,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상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직원들은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능동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외부의 법률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협력했으며 임상심리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법을 고민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는 등 지역 사회 내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내부 연구를 거듭하여 보다 더 나은 지원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었다.

## 연구와 협업, 각종 시도로 만들어가는 수원만의 색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정서나 충동 행동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변증법적행동치료(DBT)다. 사건 후에 감정, 충동 행동 조절이 잘 안 되는 대상자를 위해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준비 기간을 거쳐 선보인 프로그램인데, 개인 치료와는 또 다른 치료 효과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상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센터의 차별화된 점은 치료의 회기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처음 시작할 때 회기를 정해놓기는 하지만 회복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논의를 통해 연장하고 있다. 170회기까지



진행된 경우도 있다는 직원들의 말에서 대상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묻어났다.

협업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사례지원팀에서는 외부에 있는 법률 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술, 음악, 공예, 명상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한아 부센터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윤정 심리지원팀장은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력 서비스를 꼽았다.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MOU를 맺고 통역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로 범죄 피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대상자 분들에게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력이 희망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트라우마 심리치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트라우마 증상에 대한 설명(정상화)』과 『안정화 기법』을 요약하여 중국어·베트남어로 번역, 자료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심리 치



료를 진행할 때 쓰였다. 글과 그림으로 내용을 전달하니 치료자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 보여 무척이나 보람찼다고.

### 대상자가 스스로의 힘을 찾아나가는 모습이 원동력

직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대상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힘이 난다고 전했다. 공공 기관 중 스마일센터가 심리 치료에 더욱 힘쓰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22년 3월 입사했다는 심리지원팀 이연실 선생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던 대상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근무를 시작한 직후부터 5개월간 치료를 진행한 내담자 분이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증상이 호전되어서 치료를 종결했는데 마지막 회기에서 그분도, 저도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셨던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스마일센터는 여러 가지 치료 방식을 공유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심리지원팀 김희선 선생도 대상자가 힘을 찾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감동스러웠다고 말했다.

“치료 초기에는 아무래도 불안, 두려움, 우울감 등 심리적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스스로의 힘을 깨닫고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실 때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사례지원팀 하재은 팀장도 일상생활마저 영위하지 못하다가 고통을 딛고 취업을 했다는 등의 소식을 들으면 힘이 난다고 했다.

“내담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 법률이나 외부 기관 자원 등을 내담자에게 연계하였을 때 피해자가 직접 대처하여 일상 생활을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센터 서비스를 종결할 때가 제일 보람찬 것 같습니다.”



### 서로를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센터

직원들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대상으로 서로를 지목하며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김윤정 심리지원팀장은 센터장과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제 업무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잘 공감해줄 수 있는 지원군이 바로 동료인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지만 치료자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어 업무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센터장님께서도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뿐 아니라 정신 건강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 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입사했다는 사례지원팀의 남서정 선생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팀장님, 팀원들과 케이스에 대해 의논하고 슈퍼비전을 받거나 각자 알고 있는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힘이 됩니다.”

특수한 근무 환경이 매력 있게 느껴져 최근 입사하게 됐다는 사례지원팀의 강래현 선생 역시 선배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영감을 받는다고 앞으로의 업무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내담자들의 변화와 동료의 존재도 힘이 되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취미 생활을 하며 마음을 다독인다. 심리지원팀 천은주 선생은 퇴근 후 천천히 집 근처 하천을 산책하면서 기분을 환기한다. 정년퇴직 후 내담자의 치유를 위해 매일 깨끗이 센터를 청소하고 화분을 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행정지원팀 장경호 선생은 거울을 보며 자신과 눈을 맞추고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로 스스로를 응원한다. 마수미 행정지원팀장은 가족과 여행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많은 미디어가 생겨났지만 회복을 위해선 미디어보다 여행으로 ‘심’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함께 전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노재성 센터장은 남을 돕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하니 소진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신경 써달라며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을 드러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수원스마일센터의 앞날이 기대된다.

### 범죄피해자를 위한 응원 한마디

#### 노재성 센터장

있을 수 없지만, 영향은 작게 만들어 봅시다. 도와드리겠습니다.

#### 심리지원팀 김윤정(부센터장 대행)

힘든 시기를 견디고 회복해 낼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과정을 함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리지원팀 김희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많이 힘들실 것 같아요. 언제 일상이 회복될지 지치기도 하고 자책하게 되실 텐데,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 심리지원팀 이연실

힘드실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스마일센터에 내방하셔서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줄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리지원팀 천은주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스스로를 믿고 스마일센터를 찾아 주세요.

#### 사례지원팀 하재은

스마일센터는 전문적인 사례 지원 및 심리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저는 근무하며 항상 피해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저희와 함께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례지원팀 강래현

힘든 지금이 끝나면 미래는 행복으로 가득할 거예요. 행복을 찾는 여정을 스마일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 사례지원팀 남서정

지금의 아픔이 꼭 성장의 과정으로만 남기를! 옆에서 함께 건넵니다. :)

#### 행정지원팀 마수미

혼자가 아닌 같이 아픔을 나누는 수원스마일센터입니다. 조금의 용기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 행정지원팀 장경호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 거기에 가장 큰 삶의 영광이 존재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 봅니다.





## 우리센터를 소개합니다 ②

# 목포스마일센터 한마음으로 노력해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하다

전남 서남권을 대상으로 하는 목포스마일센터는 2021년 3월 정식 개소했다. 문을 연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함께 통과하는 직원들 사이에 끈끈한 동료애와 서로를 향한 믿음이 느껴졌다.



목포스마일센터는 대외적인 홍보, 네트워크 활동에 전념하는 한편 직원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있었다. 전남의 모든 경찰서에 방문해서 센터의 업무를 소개하고, 대상자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지역에 안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근거리에 농원이 많고 자연 지형이나 자원을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목포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기획하는 등 바쁜 와중에도 고민을 이어가고 있었다.

### 지역의 든든한 지원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고민

목포스마일센터는 센터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에 안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전남에 있는 경찰서에 몇 차례 방문해서 사업을 홍보하기도 했다는 센터. 개소 초기에 직원들이 힘써 리플릿을 제작하기도 했다는 말에서 대상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묻어났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고, 권리 및 보호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 직원들은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했다. 리플릿에는 마음 챙김, 자기 돌봄법, 컬러링 등 대상자가 집에서 편안하게 따라해 볼 수 있는 활동뿐 아니라 외상 후 증상에 대한 설명까지 알차게 담겨 있었다.

김해숙 센터장은 본연의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센터 홍보를 위해 노력해온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외부적으로는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여성 장애인 아동 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른 유관기관과도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 센터 분위기를 좋게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가 대상자들을 위한 공간이며,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전 거쳐 가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운영 철학을 함께 공유하며 대상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프로그램 개발 시 센터 가까이 원예, 과수 농원 등 자연을 누릴 만한 장소가 많다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딸기 따기 체험과 지역 맛집으로 미식 힐링을 떠났던 나들이 프로그램의 인기가 특히 좋았다고. 현재는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지역 농가와의 협업을 통해 파종부터 재배, 수확까지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가닿은 홍보를 위한 노력

목포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편이고 ‘염전 노동자 감금 및 노동력 착취 사건’ 등 인근 섬과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금과 유인, 노동력 착취, 폭력 사건도 종종 의뢰되는 편이다. 염승희 부센터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염전 노동자 사건을 뽑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터무니없는 대가를 받으며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업장을 벗어났다가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주거와 생계 문제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곤 했습니다. 2022년 초 전남경찰청에서 염전 노동 착취 수사 전담팀을 꾸려 해당 사안을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에 대해 임시 주거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지역 경찰서, 경찰청을 방문하여 센터를 홍보하고 지원 의뢰를 요청했던 수고가 결정적인 때 절실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입소한 피해자는 임시 주거 시설에 거주하면서 사례지



원, 심리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공익변호사단체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피해 입증 및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퇴소 전 스마일센터 임시 주거 서비스가 없었다면, 직원들의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없었다면 염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을 거라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행정지원팀의 신용섭 선생도 피해자와 관련된 기억을 꺼냈다.

“제가 화단을 가꾸는 취미를 갖고 있는데, 염전 피해자 분들이 입소해 계실 때 한번 같이 해보시겠냐고 제안했더니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해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모두 50살은 넘는 분들인데 그런 일을 태어나서 처음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받았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 분들이 억압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센터가 앞길을 터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서로를 튼튼한 버팀목 삼아 균형 잡는 직원들

직원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또 대상자들의 변화를 보며 일을 지속할 힘을 얻는다. 심리지원팀 한청아 선생은 대상자들을 대할 때 마음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경 쓴다고 했다.

“지역사회에 근무하면서 사회적 자원이 빈약하거나 취약점이 많은 분들을 대할 때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면 더욱 힘이 들기도 합니다. 최적의 상태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돌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의 회복 과정을 제가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점, 대상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내적 깊이를 확장하는 성장 과정을 축하해줄 수 있다는 점이 이 일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사례지원팀 김민정 선생은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다.

“생계나 양육 등 현실적인 이유로 센터 이용에 어려움을 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자원을 탐색해서 지원하고자 하지만, 때때로 센터의 손을 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회복지사로써 역할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내담자를 위한 마음으로 뚝뚝 뭉치는 우리 직원들 덕분에 힘을 냅니다.”

행정지원팀 김주혜 선생도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내부 회의를 통해 서로 의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선생님들이 다들 좋은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드릴 거 있냐는 한 마디를 전해주시는데 그게 참 많은 위로가 되고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염승희 부센터장도 내담자에게 안전한 사회망과 지지체계가 필요하듯 직원들에게도 탄탄한 지지체계가 필요하다는 서로가 힘이 되는 일터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신과 동료의 소진을 알아차리는 깨어 있는 감각,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응원 한 마디, 지지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료들 덕분에 오늘도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목포스마일센터는 앞으로도 쌓아올린 네트워크와 지역의 특성이 담긴 프로그램을 통해 내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해숙 센터장은 센터 이용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응원을 전했다.

“강력범죄, 강도, 살인미수, 방화 등의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동거인, 때에 따라서는 목격자까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직원의 역량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법무부에서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든든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도 적당합니다. 망설이고 계시다면 꼭 스마일센터를 찾아주세요!”

#### 범죄피해자를 위한 응원 한마디

##### 김해숙 센터장

심리 치료뿐 아니라 사회적, 물적, 법적 지원을 한번에 받으실 수 있는 곳, 스마일센터를 찾아주세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염승희 부센터장

스마일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잡은 손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가보면 좋겠습니다.

##### 심리지원팀 한청아

회복과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의 발자취가 별처럼 많습니다. 나의 타고난 회복력을 믿고 나만의 속도로 가볼 수 있는 곳까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 사례지원팀 김민정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외톨이가 되더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 나를 위해서 노래 부르고, 촛불을 켜고, 선물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포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초대 받은 아이들-

##### 행정지원팀 신용섭

장마철에는 한없이 비만 올 것 같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산뜻한 햇살이 우리를 반기듯 힘든 이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힘내십시오.

##### 행정지원팀 김주혜

피해자 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스마일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센터를 소개합니다  
③

## 전주스마일센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문을 연 지 7년 된 전주스마일센터는 적극적인 협업 능력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낸다는 점이 강점이다. 인터뷰 자리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담자를 생각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시도를 이어가는 센터,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전주스마일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전주스마일센터는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효과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꾸러미 프로그램, 스마일 작품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대부분 개소 멤버로 이루어진 전주스마일센터는 구성원 간 적극적인 협업과 소통을 자랑할 뿐 아니라 수탁 기관과의 탄탄한 연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지역의 특성과 내담자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전주스마일센터는 지역의 특성과 내담자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회복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대상자 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지적 장애인 대상 문화체험, 성교육 프로그램, 살인 유자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대상자의 만족도도 높았고, 상호 교류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전주의 특성을 살린 전통문화 프로그램도 내담자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회복 프로그램에 판소리, 한지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을 녹여서 지역사회 전통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개소 초기부터 수탁기관인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와 유대를 강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연대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감성코칭 프로그램, 힐링가족 캠프 등 피해자 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내담자의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하다

전주스마일센터는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소외되는 취약계층 피해자 가정을 대상으로 비대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주스마일센터가 함께하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석에도 비대면 꾸러미 송편 만들기 키트, 간식거리, 옷놀이 등을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례지원팀 구남숙 팀장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거리두기로 인해 내담자와의 만남이 쉽지 않았고 전화로 근황을 확인하거나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꾸러미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2020년부터 전 직원이 합심하여 끊임없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연도별로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을 다르게 하여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



어낼 수 있어 보람찼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1월에는 회복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만든 결과물들을 전시하는 ‘다시 스마일 작품 전시회’를 전국 스마일센터 최초로 개최했다. 해당 전시회에는 2016년부터 4년의 기간 동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회복 활동에 힘쓴 내담자들이 참석하여 자신의 작품을 감상했다.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다른 이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당 행사에 검찰, 경찰,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 내 스마일센터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에 나아갈 힘 얻어

직원들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느낄 때도 많다고 했다. 정상근 센터장은 가해자의 법적 처벌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피해자의 피해에 비해 가해자의 법적 처벌 수위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량이 너무 낮다 보니 피해자의 분노에 공감되어 저조차도 주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동복 보안요원은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마음을 열지 못할 때



가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힘들어 하고 계신데도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외부로 나오지 못한 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큼니다.”

그렇게 현실의 벽을 느낄 때도 있지만 또 피해자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일을 계속할 힘을 얻는다고 입을 모았다. 심리지원팀 조성실 팀장은 기억에 남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살인미수 피해자인데, 스마일센터에 다니며 가슴에 잔뜩 낀 먹구름이 점점 사라져 숨이 트였다며 늘 고마워하시는 내담자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뵈었을 때 자신이 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던 분이 지금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심리지원팀 김미옥 선생은 살인 유가족 중 한 아동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초반에는 굉장히 경직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담 마지막 날에 그동안 고마웠다며 준비한 손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면서 더 좋은 상담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지원팀 조은혜 선생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오랜 기간 지원해 온 피해자 분이 처음과는 다르게 표정이 밝아 지거나, 자신의 일상을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큰 힘을 받습니다.”

####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개소부터 함께 해온 직원들

7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해온 직원들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지연 부센터장은 개소부터 함께해온 직원들이 많다는 점도 전주스마일센터의 큰 장점이라고 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익숙함과 안정감, 예측 가능성 등이 일에 있어 원동력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이 늘 직원들 편에서 불편한 건 없는지 살펴 주시기 때문에 직장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더불어 내담자와 함께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가족들이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인정해주며 지원해줄 때 더욱 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개소부터 함께한 직원인 사례지원팀 구남숙 팀장도 그동안 감사한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며,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부센터장님께서 피해자 분들을 대하는 자세와 애정이 한결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덕분에 이 일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직원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을까. 도움이 될 만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추천해달라는 이야기에 정상근 센터장은 내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해 경청하고 공감하다 보면 직간접적인 트라우마와 함께 화를 경험할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언이 담겨 있는 탁닛한 스님의 『화』라는 책을 추천했다.

기호연 행정팀장은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 모험하는 기분을 느껴보라는 조언을 전했으며, 김지연 부센터장은 특정한 매개체를 찾기보다는 자신이 편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했다. 사례팀 조은혜 선생은 일과 자신을 분리하고 운동이나 씬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라는 팁을 전했다.

어떠한 고민을 안고 이 글을 읽고 있을 이들에게 김지연 부센터장의 이야기를 전하며, 오늘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전주스마일센터에 응원을 보낸다.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지 묻으시곤 합니다. 상담자로서 봤을 때는 이미 회복의 여정을 가고 계시는데 남아 있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큰일을 겪으시면 여러 가지 절차를 해결하는 데 먼저 힘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나를 돌보고 감정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달라진 세상에 적응해 나갈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 범죄피해자를 위한 응원 한마디



##### 김지연 부센터장

**전주스마일센터**는 피해를 입은 당신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심리지원팀 김미옥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울 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전주스마일센터를 기억해 주세요.

##### 심리지원팀 조성실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주세요. 전주스마일센터는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사례지원팀 구남숙

**마**음이 힘들 땐 혼자 있지 마세요. 전주스마일센터가 당신과 마음을 나누고, 당신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 사례지원팀 조은혜

**일**상생활이 더는 두렵지 않도록 전주스마일센터가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 행정지원팀 기호연

**센**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피해로부터 회복하시어 예전처럼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행정지원팀 이동복

**터**널을 지나 빛이 보일 때까지 전주스마일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각 센터가 추천하는  
지역 명소 및 맛집

## 스마일센터 직원들이 추천하는 나만의 '힐링 지역 명소'

스마일센터 직원들이 심신의 안정을 위해 찾는 지역 명소를 추천합니다.  
카페, 맛집, 공원 등 방문해볼 만한 곳을 추천해 드려니 방문하셔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같은 하루를 누리 보세요.

수원스마일센터

카페



### 직원들의 대표 힐링 장소, '오브오프'

직원들의 힐링 장소를 소개합니다. 센터에서 걸어서  
2~3분 거리에 있는 카페 오브오프는 기본에 충실한 커  
피뿐 아니라 수제청, 생과일 주스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요.  
음료를 마시면서 기분 전환을 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심리지원팀 김윤정]

저도 이 카페를 추천합니다! 특히 쌀쌀한 날씨에는 따뜻한 레몬티 한 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지원팀 김희선]

### 향긋한 과일 음료가 일품인 '코너'

여름이 되면 자복주스(복숭아+자두 주스)가 계절 메뉴로 나옵니다.  
향긋한 복숭아 향과 새콤한 자두 맛이 어우러져 자복주스를 마시면  
힐링이 된답니다! [심리지원팀 천은주]



맛집

### 베테랑 제빵사가 운영하는 빵집, '느긋한 제빵소'

유기농, 천연발효빵 전문점으로 유명 베이커리 출신  
제빵사가 직접 운영하는 건강빵 맛집입니다. 저는 잠  
봉보르를 추천합니다! [심리지원팀 이연실]

### 자꾸 생각나는 칼국수 맛집! '큰손칼국수'

들깨 칼국수와 콩국수 맛집인데요. 자꾸 생각나는 맛  
이라 주말에 굳이 찾아가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심리지원팀 이연실]

지역명소

### 자연을 보면서 걸어요, '광교호수공원'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 호수를 보며 차 한잔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등 여러  
방법으로 심을 누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러닝을 하는데 자연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으니 정말 좋더라고요! [사례지원팀 남서정]

### 특별한 느낌을 선사하는 '효원공원 월화원'

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의 촬영지로 유명한 중국식 정원입니다! 밤에 조명  
이 켜지면 더 특별한 느낌이 드는 곳으로 후원에는 흙을 쌓아 만든 가산과 인공  
호수가 조성되어 있고, 호수 주변에는 인공 폭포와 정자가 있습니다.

[사례지원팀 강래현]

### 골라 먹는 재미! 즐거움이 두 배! '수원통닭거리'

종류별로, 가게별로 맛과 분위기가 달라 매력 있는 곳입니다.  
방문하셔서 돌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팀 마수미]





## 목포스마일센터

## 맛집

**진심을 담아 추천하는 지역 맛집!**

일단 야들야들한 소고기가 들어간 얼큰한 해장국집, '마당집'을 추천합니다. 차원이 다른 해장을 하실 수 있고 주 메뉴인 냉면도 정말 맛있습니다! '스시마 파지로'라는 횡집의 계란 초밥은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할 맛이라 꼭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럴라이스'의 구움 과자도 쌀로 만들어 쫄득하고 달콤하며 정말 맛있습니다! [\[사례지원팀 김민정\]](#)

**일본에 놀러온 느낌을 물씬 받을 수 있는 곳, '이솝'**

오고노미야끼가 정말 맛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앉아서 인테리어를 감상하며 식사하다 보면 마치 일본에 놀러온 느낌이 든답니다! [\[심리지원팀 한청아\]](#)

**어디 갈지 고민이라면, 목포시 공인 별미 추천!**

목포는 문 열고 나가면 어디든 다 맛집입니다. 뭐부터 드셔야 할지 고민이라면, 목포시가 공인하는 아홉 가지 별미(세발낙지, 홍어삼합, 민어회, 게살무침, 갈치조림, 병어회, 준치무침, 아구찜, 우렁간국)를 드셔 보세요! 별미 도장 깨기로 목포 여행을 즐겨 보셔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부센터장 염승희\]](#)



## 지역명소

**목포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유달산'**

낮에는 탁 트인 목포 전경을, 밤에는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바다와 목포대교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힐링할 수 있는 유달유원지도 추천합니다!

[\[사례지원팀 김민정\]](#)

**춤추는 바다 분수가 있는 곳, 목포 평화광장**

볼거리가 다양하고 볼꽃놀이나 춤추는 바다 분수 등 여러 이벤트가 열리는 곳이에요! 목포의 힐링 장소로 추천합니다!

[\[행정지원팀 김주혜\]](#)





## 전주스마일센터

## 맛집

**전국 최초의 돌솥밥을 맛볼 수 있는 곳, 반야 돌솥밥**

계란 노른자와 콩, 버섯, 은행 등이 올라간 뜨거운 돌솥밥에 짭조름한 양념간장을 넣어 비벼 먹고, 다 먹고 남은 누룽지는 물을 붓고 박박 끓여내 뜨끈한 누룽지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맛을 돋우는 녹두전이나 바삭 불고기를 함께 곁들이면 푸짐한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인정하는 맛집, 다올콩나물국밥**

전주남부시장에서 오후 1시까지만 영업하는 이 곳은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콩나물국밥집입니다. 알싸한 마늘과 청양고추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수북히 담긴 콩나물에 짭짤한 김과 오징어사리를 첨가하여 먹으면 칼칼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으로 전날 과음한 직장인들이 해장을 하러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갯 지은 밥과 나물의 조화, 하숙영 가마솥비빔밥(구 중앙회관)**

수많은 비빔밥 전문점 중에서도 특히 맛있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주문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솥에 밥을 짓기 시작하여 갯 지은 밥과 매콤한 고추장 양념, 여러 가지 나물로 전주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상 가득한 밀반찬과 떡배기에 끓인 구수한 된장국이 더욱 다채로움을 더합니다.

**콩나물 국밥과 특히 잘 어울리는 전주 모주도 즐겨 보세요!**

막걸리에 생강, 대추, 계피 등을 넣고 만든 술로서, 알콜도수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2009년 국가향토사업으로 전주모주를 개발한 이후 전주를 대표하는 기념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지역명소

**전주 시민들의 인기 등산 코스, 모악산**

전주시의 남쪽에 있고 시 경계로부터 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전주 시민들이 산행 코스로 주로 찾는 곳입니다. 1971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산 서쪽에는 백제 법왕 원년에 창건된 금산사가 있어 이 곳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가 인기입니다. 이 외에도 대원사, 수왕사 등의 사찰이 있습니다.

**연꽃 향기 따라 떠나는 호수 산책, 덕진 공원**

전주시 덕진구를 대표하는 공원이자 관광지 중 한 곳으로 각종 기념비와 수변무대, 분수와 함께 덕진호라는 상당한 규모의 호수가 있습니다. 5월이면 창포와 연꽃으로 가득 메워져 사진작가나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호수 내에 수동 오리보트가 있어 가족과 연인들이 선호하는 데이트 코스이기도 합니다. 호반을 가로지르는 연화교를 건너다보면 나오는 연화정도서관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즐기며 덕진호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의 숨은 명소,  
꼭 가봐야 할 공간 소개**

관광객에게 한복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처음 운영했을 정도로 우리문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그곳에서 우리 전통을 느껴 보세요. 문화시설 선비 문화관은 조선 후기 한옥마을 선비들의 예술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전주한옥마을이 생겨난 이야기부터 전주한옥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인 전주한옥마을역사관, 김치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전주의 음식문화와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전주김치문화관, 전통 가양주 빚기 체험, 전통주 발굴 및 계승 문화시설인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지 관련 공예 작품 활동 및 전시-체험과 조선시대 의례를 한지로 재현·전시하는 문화공간인 공예공방촌 1단지, 최명희 작가의 세세한 삶의 흔적과 치열했던 문학 혼을 볼 수 있는 문화시설인 최명희문학관, 전주 부채의 역사적 가치를 밝히고 부채 장인들의 예술혼을 재조명한 문화시설인 전주부채문화관, 한옥마을 대표 복합문화시설로 전통혼례, 마당창극,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공간인 전주한벽문화관, 출판문화의 중심지였던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문화공간인 완판본문화관 등도 방문하면 좋을 장소입니다. 그중 완판본문화관은 꼭 방문하기를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완판본이라 함은 전라도의 옛 수도였던 완산에서 발간한 옛 책과 판본이라는 뜻입니다. 완판본문화관에는 고서와 목판, 목판을 만들 때 사용했던 여러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문화를 바로 알고 깊이 만나보고 싶다면 전주한옥마을을 거닐며 힐링하세요!



## 자유기고

인천스마일센터 이용자 이00

길고 긴 회복의 시간,  
내가 웃을 수 있게  
되기까지

나와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펜을 들었다.

고통이 손쉽게 끝맺어지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냈다는 것이

나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나의 편이 되어주고

어디에서도 받기 힘든 마음을 건네준

스마일센터에 감사를 전한다.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서류 작성’이란 최대한 미루고 싶은 숙제 같았다. 탄원서, 의견서, 반박서 등……. 피해를 한 번 더 꺼내야 하는 그 고통을 이 글을 읽는 피해자들은 공감할 것이다. 이 글을 작성하려고 마음먹은 때에도 역시, 조금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이 닿는 곳이, 이전과는 달리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에 노트북을 바로 집어 들었다.

난, 거의 다시 웃고 있다. 피해를 입고 나서부터 고소 절차를 밟아온 것이 4년. 경찰-검찰-1심-2심-3심과 민사 소송까지, 총 6단계에 걸쳐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나라의 확실한 ‘성범죄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판결로 인해 내가 거의 다시 웃게 된 것은 아니다. 오로지 판결을 통해 다시 행복을 되찾고 싶다는 피해자 분들이 있다면 내 경험상 기대는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오히려 생각보다 긴 시간이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와 반대로 이 과정을 아예 겪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더더욱 말리고 싶다. 누구든지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하여 당당히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에 수반하는 고통이 우리 인생의 아주 일부분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만큼 강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스마일센터가 있으니까.

우리의 뼈가 골절되면 깁스를 하며 뼈가 붙길 기다린다. 내게 스마일센터는 이 깁스와 같은 존재였다. 뼈를 붙여줄 순 없지만, 다시 회복하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 단단한 바위와 같은 센터가 있어, 넘어지면 피 흘릴 가시밭길에서 잠시 기댈 수 있었다. 상담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안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 내게는 심리적으로 큰 위안

이 되었다. 무서울 만큼 나약해진 나와는 다르게, 건강한 조언자들이 누구보다 내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나를 이해해준다는 것은 아무 사건을 겪지 않은 일반 사람들에게조차 일어나기 힘들 일 아니겠는가. 그렇게 눈물 나도록 감사한 관계성 자체로 다시 회복할 동력을 얻었다. 사람과 공간뿐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과 자원물품들만 보아도 이곳에서만큼은 나의 자립을 응원해주는 것만 같았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성범죄자 덕분에 난 극악의 고통까지 경험했지만 지탱해주는 센터와 선생님들이 있어서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줄 알게 되었다.

영원히 행복하게 웃을 줄 모를 내 사건의 성범죄자는, 민사 소송의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건에서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인 나를 비하하는 서류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중이다. 예전 같았으면 센터에 의지하여 도움을 받고 치유를 받았을 나인데, 어느새 이런 과정쯤이야 혼자서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제, ‘거의 다시’ 웃지는 않게 되었다. 처음엔 망설여졌던 이 글을 쓰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와 응원을 전하다 보니, 나는 비로소 ‘완전히’ 웃게 됨을 느낀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죄의 책임을 묻은 결과는 내게 큰 성장이 되었고 법원의 유죄 판결보다 더 값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을 함께 걸어온 센터의 따뜻한 지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인천스마일센터, 고맙습니다!





# 단단한 위로가 되어준 책 속의 문장들

평소와 다름없이 센터를 돌아보고 정비하던 어느 날, 그날따라 센터의 다양한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담자들을 위해 매년 신중히 고르고 골라 좋은 책들을 구입하는데 센터 이용객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 책들이 장식용이 아니라 좋은 책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센터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빌려 가고 마음껏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 독서 이벤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독서 이벤트 「내가 사랑한 책 문장」에 참여한 센터 이용객들은 센터의 책을 읽고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과 그 문장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를 나눴다.

하지만 만약 찾기를 그만둔다면,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찾자.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자. 「도망치고, 찾고 中」 두꺼운 책은 다 못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교적 얇은 책을 선택했는데 책의 내용이 지금 제 상황이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추게 되면, 어쩌면 있을지 모를 눈부신 날들을 영영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에 중요한 것들을 함꼐 찾기가 두렵지만 조금만 더……. 이 모든 상황이 나아지면 제가 다시 긴 여행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관계이고 관계는 소통이다. 「불편한 편의점 中」 편의점을 드나드는 온갖 인간 군상을 극작가의 가벼운 문체로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걸 보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잘 소통하면서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어주기, 그날 고른 나를 아낌없이 믿어주기  
「마음에도 근육이 붙나 봐요 中」

비가 오네요, 지금. 스스로를 단련하지 못한 채, 나를 돌볼 겨를 없이 살아오기를 십수 년. 시원한 비가 오고서야 나를 꺼내 볼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나를 인정하는 시간, 스스로를 칭찬하는 시간. 이 시간 하루하루가 더해져 더 단단한 마음 근육을 지닌 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새겨 둡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발견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中」

성인이 된 이후부터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친구도, 다른 누구도 없이 대체로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웠고 이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고 얼마 가지 않아 헤어졌습니다. 또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 이 책의 문장을 감명 깊게 읽은 뒤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통하는 게 있어서 즐겁다면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떤 처지인지를 떠나서 그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면서 행복하게 지내보자라는 생각이 들과 함께 어쩌다 보니 책의 원래 주인인 지금의 남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했으면 싶어 책을 자랑하고 추천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 각자의 이유를 머금고 지금껏 달려왔기에. 각기 다른 경험을, 아픔을 겪어왔기에.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라는 기적 中」

어느 순간 민망해져서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누군가 이 책을 알게 되어 저처럼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약간의 오지랖을 부려봅니다. 책의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수많은 기적을 떠올리며 아이들과 살아갈 힘을 키워봅니다.

개인적으로 내담자들이 각자 다른 책을 읽었지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것, 내가 나를 지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꼈으리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위로를 들었을 내담자들이 이번 독서 이벤트를 통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하고 파이팅해주지 않았을까?

내담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며 그 힘의 원천도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자꾸 잊는 것 같다.

나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할 수 있을까란 자기 의심도 많이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땐 회피하고 싶고 누군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곤 한다. 하지만 이번 센터 이벤트를 진행하며 결국 내가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약한 마음이 들 때는 나 자신에게 '마음 단디 먹고, 정신 똑띠 챙기라!'라고 말할 수 있는 강한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





코로나가 한풀 꺾이고 멀게만

느껴졌던 여행이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진다.

해외를 나갈 수 없던 관광객들이

몰려들던 제주도도 아주 조금은

여유로워진 느낌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는 기분 전환을

위해 가볍게 떠나기 좋은 곳이다.

넘쳐나는 여행 정보 속에서 헤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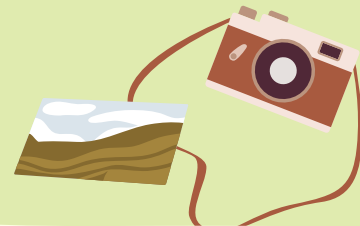
이들을 위해 제주스마일센터의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힐링 스팟' 소개에

나섰다. '찐도민 추천지'에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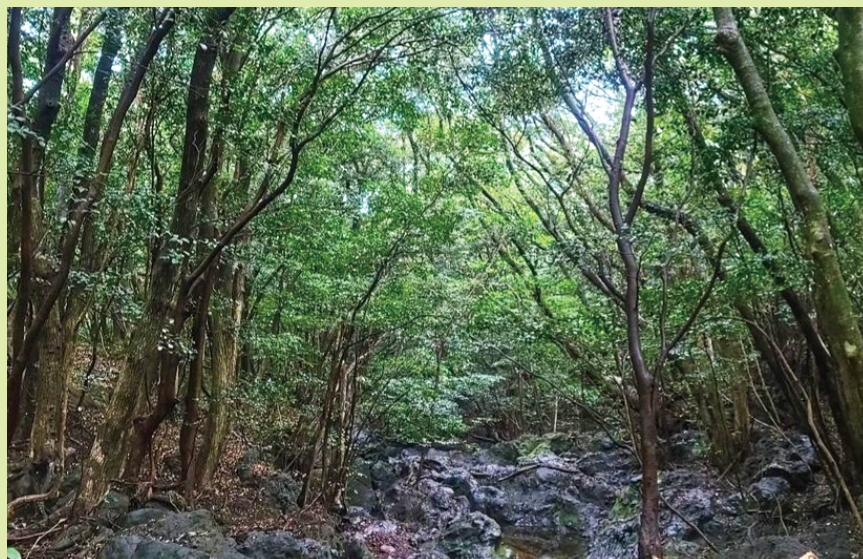
# 제주스마일센터 대학생 서포터즈가 소개하는 제주 힐링 스팟



66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쉬고 싶다면 바로 이곳!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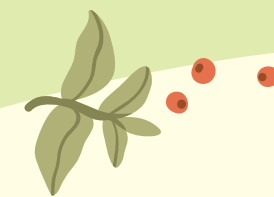
## 제주도의 숨겨진 숲길, '머체왓 숲길'

'머체왓 숲길'은 자연을 만끽하며 한적하게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숲길 중 하나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림리에 위치한 '머체왓 숲길'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고요하고 평화로운 테마 숲길로, 각 탐방 코스마다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어 여러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삼나무와 편백나무, 계곡이 어우러져 있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한적하여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누리기에 안성맞춤이다. 급한 경사나 계단도 없는 짧은 코스의 '머체왓 숲길'은 오래 걷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온다.



## 꽃을 심은 카페, '꽃섬'

카페 앞 넓은 꽃밭, 입 소문난 피자, 향기로운 커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카페 '꽃섬'은 힐링을 위한 모든 것이 자리한 곳으로 이곳에서라면 특별한 심을 경험할 수 있다. 촬영 관광지로도 유명한 꽃섬 파크에는 유채꽃, 코스모스 등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이 만개해 있어 언제 가든 꽃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을 수 있다. 꽃섬 파크 한쪽에 위치한 꽃섬 카페에 들어가 꽃차를 마시며 지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갓 구운 피자와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만족감을 더한다. 꽃과 섬을 타는 곳, '꽃섬'에서 눈으로 맛보고 마음과 배를 채우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 서포터즈 활동 후기

제주도는 인구수 대비 범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강력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범죄 피해자에 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범죄 피해자 중에는 보호 제도 및 지원 제도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리라 사료된다. 그렇기에 심리

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스마일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서포터즈의 필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서포터즈 활동 시 진행된 교육을 통해 다양한 PTSD 치료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PTSD 환자들을 단순히 치료 대상으로 바라보며 외면하는 것이 아닌 이해와 수용의 자세로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나 자

신을 돌아보고 성장과 회복을 위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활동들이 범죄 피해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더욱 결의를 다지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 있을 교육과 활동에도 더 열심히 참여하여 서포터즈 활동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다시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66 마음 속 먼지를 날려 보내고 다시 일어서요 99

제주 서포터즈 : 스마일리



### 드높은 창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보롬왓’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삼다의 섬, 제주도에는 볼거리가 참 많다. 검색만 하면 숨겨진 놀거리와 도민 맛집을 낱알이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상상 속의 푸르고 아름다운 관광지는 같은 설렘을 안고 온 사람들로 뻘뻘하게 채워져 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탓으로 봄비는 곳에만 가면 걱정이 참 많기도 생긴다. 바로 이런 지금, 잠시나마 답답한 일상을 멈추고 온몸 가득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채우며 따뜻한 햇살 아래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주도에는 바람을 심어 둔 밭이 있다. ‘보롬왓’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는 바람을 뜻하는 제주어인 보롬과 밭이라는 뜻의 왓을 합친 말로 바람이 부는 밭을 일컫는다. 밭이라고 하니 괜히 투박한 농기구들이 연상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법 아기자기한 식물원에 가깝다. 버드나무와 유채꽃, 수국이나 라벤더 등의 식물들이 계절에 따라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는 곳이라 여러 번 찾아가도 익숙하지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곳이다. 저 멀리 바라보면 눈도 정신도 맑아질 것 같은 풍경이 길게 이어지지만, 여타 다른 식물원처럼 초목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부드러운 양들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고 개구리가 폴짝이는 호수 위의 연잎을 감상할 수도 있다. 실내에는 하늘을 덮는 잎사귀 사이로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다. 깨끗한 자연풍경을 만나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이지만 높은 하늘이 이어지는 지금, 제주에서라면 놓치지 않고 감상할 수 있다.

콘크리트 건물 사이, 아스팔트 위의 일상 속에서 푸르고 넓은 하늘을 올려다볼 일이 얼마나 있을까? 마지막으로 여린 풀잎을 쓰다듬어 본 적은 언제였을까? 창문을 열고 방을 환기하는 것처럼, 마음 속 살포시 내려앉은 먼지들을 날려 보내고 새로운 호흡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66 태양이 바다 한가운데로 저무는 풍경을 지켜봐요! 99

제주 서포터즈 : 위더스(배은재, 황희)



### 일몰 명소로 유명한 ‘신창 풍차 해안도로’

가슴이 답답할 때, 나의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내가 한없이 나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바다로 향한다. 푸른빛의 하늘과 맑고 투명한 바다가 맞닿아 있는 수평선 그리고 줄줄이 이어져 있는 풍차. 이곳은 신창 풍차 해안도로다. 이곳의 뽕 뚫린 풍경에 빠져 넋 놓고 해안가를 걷다 보면 마음속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던 온갖 잡생각이 사라지곤 한다. 물이 빠지는 시간에 가보면 바다 한가운데에 길이 하나 생기는데, 항상 그 길의 중간까지 걸어가 거대한 풍차를 한번,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한번 꼭 바라본다. 기억 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담고 마음속에 행복한 지금의 나를 담는, 나만의 풍차 해안도로 루틴이다. 시간이 좀더 흘러 그 길이 서서히 잠기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길에서 있었던 순간이 마치 마법같이 느껴진다.

풍차 해안도로는 일몰 명소로도 아주 유명하다. 풍차 해안도로에 간다면 꼭 시간대를 미리 확인해서 일몰까지 보는 걸 추천한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서서히 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태양이 바다 한가운데로 저물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 벅찬 감정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신창 풍차 해안도로에서 아름다운 풍경, 행복한 추억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 서포터즈 활동 후기

스마일센터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정신건강박람회에서 우리 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전하는 응원 트리 활동을 진행했다. 빈 트리가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분들의 관심에 감사했고, 서포터즈로서 큰 뿌듯함을 느꼈다. 그 트리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며 스마일센터를 알리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서포터즈가 되겠다.



## 66 소중한 사람과 함께 제주의 바다를 오롯이 즐겨요 99

제주 서포터즈 : 위로



### 관광지 가까이! 놀러가기 좋은 '곽지해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 위치한 곽지해변. 여름에는 아름다운 바다에서 수영도 가능하고, 겨울에는 하얀 백사장 해변을 따라 걸으며 산책할 수 있다. 옛날에 마을이 들어서 있던 곳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모래에 파묻혔다는 전설이 전해져오고 있으며, 해변 곳곳에 제주의 상징인 해녀상이 설치되어 있다.

제주도 중간 즈음에 위치한 곽지해변은 제주도에 여행 왔을 때 방문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다른 해변에 비해서는 사람이 적은 편이라 혼자 다니기도 좋다. 또, 야외 야영장이 있어 캠핑도 할 수 있다.

여름 해수욕장이 개방됐을 때 방문했는데 바다의 온도가 딱 좋아 수영하기에도 좋았고 파도 소리 들려오는 백사장을 따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곽지해변 근처의 가게가 좋았는데, 맛있는 맛집과 예쁜 카페들이 주변에 많다. 애월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유명 관광지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다. 애월의 새벽 오름이나 애월항 등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혼자, 친구들과, 가족들과, 애인과! 누구와도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예쁜 백사장과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는 곽지해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혹은 생각 정리가 필요하다면 이곳에 둘러보는 건 어떨까.



진심을 다해 활동한  
제주스마일센터 대학생 서포터즈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들이 추천하는 제주 힐링 스팟에서  
독자 여러분들도 지친 몸과 마음을  
녹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보세요!





## 힐링 북스

# ‘살아서 더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입체적인 기록 용서하지 않을 권리

《용서하지 않을 권리》는 국내 최고 트라우마 상담가이자 임상수사심리학자인 김태경 교수의 첫 책으로, 잔혹한 범죄에만 주목하는 사회에서 사람으로 시선을 옮기기 위한 시도를 담았다. 모두가 사건에 주목하고 있을 때,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한 김태경 교수가 마주한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살아서 다행이지 않은 삶’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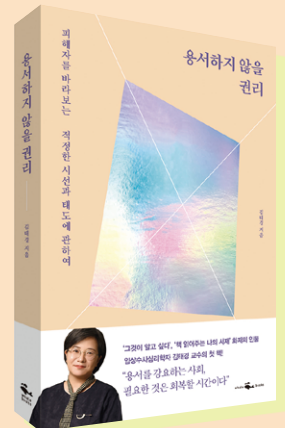
살인, 성폭력, 폭행, 아동학대가 벌어지면 미디어에서는 사건을 소비하기에 바쁘다. TV를 틀면 범인이 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사건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경위를 찾는 데 몰두한다.

반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수준은 현저히 떨어진다. 매체와 소문을 통해 들은 파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너무 쉽고 빠르게 피해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며, 때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에게 다양한 굴레를 씌우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한다고 착각하며 피해자를 쉬운 언어로 위로하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폭력적인지 이 책은 낱알이 밝힌다.

《용서하지 않을 권리》는 우리가 자극적인 범죄 사건에만 몰두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범죄 사고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범죄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편견 없이 사건을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일상을 다시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게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 더욱더 조심하며 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니 더욱 주변 사람을 의심하며 불안해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러니 누군가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일부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 아픔을 건강한 방식으로 공감해 주자는 말이고, 그들이 잘 회복해서 건강한 이웃으로 돌아오도록 돕자는 말이다. 여러 연구에서 범죄 영향을 벗어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요인이 ‘주변의 지지’임을 공통되게 보여준다. 이 말은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범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누군가를 도울 유일한 자원일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범죄의 그늘에 가려 잊힌 사람들의 이야기-나가며』 중에서



김태경 저  
출판사 웨일북

## 공동체의 일원으로,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일

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지독히 운이 나빴을 뿐이다. 하지만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찾는 사회에서 피해자가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 는 가족이 모르는 사람에게 살해당했다면, 시신이 없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신을 보 지 못할 경우, 그 상실을 받아들이고 회복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선불리 위로할 수도, 감히 공감할 수도 없다면 우리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저자는 “우리가 피해자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말한다. 피해자 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개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작고 걱정만 지지는 그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는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라는 출동 경찰의 말 한마디, 누군가 잠시 곁을 지켜주는 것, 말없이 건네준 물 한 잔, 옷을 챙겨 입을 시간을 주는 것, 호기심에 찬 구경꾼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등과 같은 작은 관심과 배려가 ‘세상이 여전히 안전하며 살 만하다’라는 감각을 잃지 않게 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재판 중 관계자들의 중립적이면서도 공감 어린 말, 말할 기회와 시간을 넉넉히 주려는 태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부적절한 변호인의 질문을 중지시키는 것과 같은 작은 배려가 피해자에게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억울함과 분노를 경감시켜 준다. 이 책은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함에도 인간을 고통 속에서 해방하는 것도 다른 아 닌 타인이라는 깨달음을 준다.

많은 사람이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범인조차도 형벌을 통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졌다고 감히 생각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일사부재리, 즉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누군가 법체제로부터 악용당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힘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형사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며 관련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범죄자가 한 번의 법적 처벌을 통해 온전히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용서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중에서

## 저자 : 김태경 교수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 전 서울동부스마일센터장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고된 과정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

# 시와 심리학 이론이 건네는 가장 균형 잡힌 조언 마음은 괜찮냐고 시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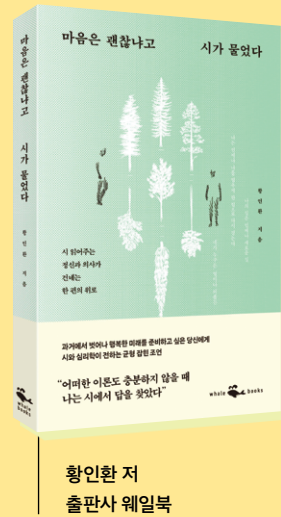
《마음은 괜찮냐고 시가 물었다》는 자신의 마음속 세상에서 길을 잃은 이에게 건네는 마음 안내서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우선 “오늘 마음이 어때?”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건 어떨까. 질문하기가 망설여진다면, 또 대답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유난히 지치고 피로했던 하루의 끝, 나에게 시를 읽는 시간을 선물하길 바란다. 《마음은 괜찮냐고 시가 물었다》가 그 첫걸음을 떼게 해줄 것이다.

## 시를 보듯 마음을 읽을 때 비로소 마음이 내 편이 된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 있다. 자칫 타인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또 나의 아픔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홀로 동떨어진 기분을 느끼곤 한다. 이럴 때 시를 읽으면 시인 및 시의 화자, 그리고 시를 읽은 많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차가운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준다. 무엇보다 시는 압축되어 기억하기 쉽다는 편의성 또한 갖추고 있다. 파편적으로 기억되는 소설이나 영화와 달리, 시는 필요할 때마다 전문을 꺼내어 볼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의 감정이 낯설고, 관계가 힘들고, 삶이 막막한 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건네고자 했다. 1부는 외면해 왔던 현재의 감정을 마주하도록 하고, 2부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탐색한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마음의 뒷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매일 잠들 때, 그리고 눈을 뜰 때 ‘내일 특별한 일이 뭐가 있겠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데 왜 살아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의지로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회사에 가는 의미를 모르겠다며 고민하기보다는, ‘회사 가는 이유가 별것 있나. 그냥 월요일이니까 가는 거지’ 하는 삶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대신 점심시간에 좋아하는 메뉴를 먹겠다고 결심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당장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거죠. 이러한 일에 익숙해지면 자신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도 있겠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설렘 만한 이벤트를 선물하는 겁니다.

『무기력 : 삶의 의미 대신 행복을 찾는 연습』 중에서



## 심리 이론이 시를 만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자는 시와 전문적인 심리 용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마음을 읽어내는 것을 넘어 그 해결책까지 제시한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늘 상대의 마음을 시험하고, 결국 떠나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계속 버림받는 상황에 두는 이들이 있다. 어렸을 때 제대로 애착이 형성되지 못한 이들에게 상대가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미래의 확정적인 사실로 존재한다. “내 집은 왜 종점에 있냐”라고 자신의 상태를 단정하며, “그러니 모두/내게서 서둘러 하차하고 만 게 아닌가”라고 한탄하는 시의 화자처럼 말이다(박소란, 〈주소〉). 저자는 이들에게 “상류로 거슬러오르는 물고기떼처럼”(이성복) 과거의 아픔이 현재를 결정하도록 하지 않는 의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렇듯 심리학 이론과 시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어루만진다. 가장 따뜻한 텍스트인 시와 가장 따뜻한 학문인 심리학의 만남에는 기대 이상의 울림과 효용이 있다.

## 나다운 삶을 위해 우리에게 시와 심리학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요”, “불만족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상담할 때, 대부분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을 제거하고 삶의 악조건을 극복하는 법을 묻는다. 이에 시는 대답한다. “외로우니까 사람이 다(정호승, 〈수선화에게〉)”, “그 씨 한 톨마저 없으면 우리는 쓰러지지/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지(이병률, 〈비밀이 없으면 우리들은 쓰러진다지〉)”, “너의 자리는/이 세상 모든 곳에 있다(메리 올리버, 〈기러기〉)” 결국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마저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삶의 조건에서도 발 디디고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저자가 책을 통해 건네는 조언도 이와 비슷하다. 그는 어떠한 마음도 극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모든 감정을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로 삼는다. 늘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때문에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택을 내려도 최선을 다하는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를 사랑하는 일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사랑이지 나의 선택에 대한 사랑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 모든 생각과 선택, 행동을 합친 결과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두고, 이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가치와 행위의 도달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을 앞두고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자는 것이지, 내가 한 선택을 무조건 지지하며 합리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내린 모든 선택을 용인하는 데에 활용되곤 합니다. 나를 위한 선택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후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한 일이니 다 괜찮다는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애 : 나를 사랑한다는 착각』 중에서





스마일센터에서 하는 일

## 제7회 스마일센터 연례학술 심포지엄 개최 범죄피해 트라우마와 외상 후 성장

11월 28일,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이하여 제7회 스마일센터 심포지엄 <범죄피해 트라우마와 외상 후 성장>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개최됐다.

스마일센터 학술심포지엄은 대중들에게 범죄피해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트라우마의 특성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개최되어 왔다. 이번 학술심포지엄 주제는 <범죄피해 트라우마와 외상 후 성장>으로, <범죄피해와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성장, 성장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강연에 앞서 김태경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은 “범죄피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 내려 애쓰는 피해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법무부 위은진 인권국장은 축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나아가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되는 실례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스마일센터의 심리치유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제7회 스마일센터 학술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했다.



제7회 스마일센터 학술심포지엄

범죄피해 트라우마와 외상 후 성장

2022.11.28.월 오후 2시~5시

장소

웹비나(ZOOM 화상회의)

대상

범죄피해자 지원 및 치료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내용

범죄피해 트라우마와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이해

신청

11월 23일(수)까지  
신청서(<https://forms.gle/tC2WhgAfjrWbWe4u8>) 작성

문의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02-333-1295)

시간

내용

13:30~14:00

입장 및 대기

14:00~14:05

식순 및 내빈 소개

14:05~14:10

개회사  
김태경(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14:10~14:15

축사  
위은진(법무부 인권국장)

14:15~15:45

주제 1. 범죄피해와 외상 후 성장(실례 사례를 중심으로)  
장은진(대전스마일센터장, 한국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15:45~16:00

휴식 (coffee break)

16:00~17:00

주제 2. 외상 후 성장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  
(용서하지 않을 권리)  
김태경(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법무부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제7회 스마일센터 학술심포지엄

범죄피해 트라우마와 외상 후 성장

11월 28일(월) 오후 2시~5시

임자영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주제 1.

범죄피해와 외상 후 성장

장은진

대전스마일센터장, 한국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임자영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법무부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주제 2.

외상 후 성장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

김태경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임자영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법무부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법무부 위은진 인권국장 축사



첫 번째 주제인 <범죄피해와 외상 후 성장> 강의는 대전스마일센터장 장은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 강의에서는 범죄피해가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살펴보고,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회복을 넘어서 성장을 이루는 변화, 즉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에 관한 이론 소개와 더불어 스마일센터 치료사례들을 통해 관련 주제를 생생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본인이 수행한 연구인 <범죄피해 외상 경험자의 심리적 어려움과 대처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를 통해 범죄피해 외상 경험자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하며 끊임없이 긍정적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인 <외상 후 성장, 성장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은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및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태경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강의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느끼고 지각하는 ‘동감’과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이해하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공감’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동감의 가치와 위험성, 나아가 공감의 가치와 함께 공감했다는 착각이 불러오는 유해한 결과를 경고했다. 또한 오랜 범죄피해 트라우마 치료 경험을 토대로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특히 심리적 경계 유지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국 스마일센터 직원을 비롯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병의원, 상담센터, 대학, 정신건강 관련 기관, 군 관련 기관,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종사자들과 일반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 한 참석자는 만족도 조사에서 “범죄피해자의 건강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다”라고 했다.

일시	2022년 11월 28일 14시~17시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ZOOM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 유관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및 치료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내용	범죄피해 트라우마와 외상 후 성장 <b>주제 1. 범죄피해와 외상 후 성장</b> 장은진(대전스마일센터장,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b>주제 2. 외상 후 성장, 성장 촉진요인과 방해요인</b> 김태경(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 겸임.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따뜻한 법률상담소

# 범죄피해자 지원 및 공판 관련 기본 법률 정보 및 관련 재판 용어

“어디서 들어본 듯 한데…”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은데  
모르겠는데…”

“들어본 거 같은데,  
정확히 무슨 소리지?”

사건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섀뜻 이해가 가지 않는 법률 용어가  
너무 많다. <다시읽기 Vol.5  
따뜻한 법률상담소>에서는  
법률용어 풀이를 만나 본다.



## 1.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람에 대한 용어

순번	용어	의미
1	피해자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
2	고소인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촉구한 사람(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
3	고발인	피해자가 아닌 자로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촉구한 사람
4	피의자	가해자가 기소되기 전 단계로서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태
5	피고인	가해자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가 된 상태
6	증인	피해자 또는 목격자 중에 법정에 나가 증언한 사람으로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신청

## 2. 공판 기일 관련 용어

순번	용어	의미
1	공판준비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사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진행하는 준비기일로서, 쌍방이 주장 및 입증계획을 밝히는 기간</li> <li>통상 검사가 먼저 공소사실을 밝히고 피고인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여부, 입증을 어떻게 할지 여부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li> <li>피해자나 피해자 대리인의 법정 출석 및 의견진술 가능</li> </ul>
2	공판기일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기일로서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피해자나 피해자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가능
3	증인신문기일	검사와 피고인 변호사, 판사가 증인을 법정에서 신문하는 기일로서 다양한 증인지원제도 존재
4	속행	재판이 끝나지않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뜻하는 말로 예컨대 “한 기일 속행한다”고 하면 재판을 마치지 않고 한번 더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
5	결심	재판을 종결하는 것으로서, 결심했다고 해서 그날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결심을 하면서 판사가 판결 선고일을 지정
6	판결의 선고	판사가 판결원본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 · 무죄 및 형량'이 쓰인 주문을 읽는 행위로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선고를 연기

## 3.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지원제도

순번	용어	의미
1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 옆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족이나 변호사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며 신뢰관계인은 ① 13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③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 피해자에게는 필요적으로 지원되고 그 밖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불안 또는 긴장을 심하게 느낄 경우 지원 가능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로써,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선변호사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국선변호사는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기도 하고, 피해자대리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진행





순번	용어	의미
3	증인지원관 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제3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경우, 증인지원관이 사전에 증인을 만나 각 법원마다 설치돼 있는 증인지원실까지 동행한 후 형사재판절차 및 증인신문의 취지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4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 법정에서 증언하게되면 법정 안에 있는 피고인과 대면하게 되고, 그렇게 대면한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증언하기가 곤란하므로 피해자를 법정이 아니라 비디오중계실에 있게 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
5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	피고인이 있는 법정 안에서 증언을 하되, 증인이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증인석 주변을 차폐시설로 둘러싸고난 뒤 증언을 하게 하는 방식
6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	피고인의 변호인만 남기고 피고인을 법정에서 퇴정시킨 후에 증인을 법정으로 들어오게 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방식
7	비공개 재판	재판 관계자 외에 다른 방청객을 법정에서 퇴정시킨다는 의미로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지만 재판을 공개하는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필요할 경우 증인신문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에도 진행)

4. 배상명령 제도

순번	용어	의미
1	배상명령의 의미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
2	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 및 추행죄,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죄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 장소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음란, 카메라이용 촬영죄 및 그 미수범 아동 청소년 매매 및 성매매 강요 등
3	배상명령의 인용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고, 피해 금액이 특정되었으며, 피고인의 배상책임 및 그 범위가 명백하여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무상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등의 경제범죄에서 인용되고 성범죄에서는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편



# 스마일 가득한 날

## 송년회 및 연말 프로그램

### 서울동부



### 겨울맞이 원데이 클래스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고자 인근의 지역 공방과 연계하여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친환경 삼베 수세미 만들기, 목도리 뜨기, 연말 꽃바구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소하게 웃음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10.~12. / 퍼스트페이지 공방)

### 인천



### 수고했어, 올해도 프로그램

연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 해 동안 고생한 서로를 격려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자는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12.15. / 인천스마일센터 1층 강의실)

### 광주



### 스마일 홈파티 선물상자

피해자와 가족, 직원들이 가정 내에서 소소한 행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홈파티 키트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비공개 밴드에서 서로 사진을 공유하며 따뜻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2021.12. / 광주스마일센터 및 피해자 가정)

### 대구



### 대구 송년 연하장·타일 트레이 만들기

그동안 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준 유관기관에 마음을 담은 연하장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진행해왔던 송년행사를 운영하지는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송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타일트레이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마음을 채길 수 있도록 했고, 자신을 위한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만족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11.01.~12.31. / 대상자 가정)



## 대전



## 2021 송년 행사

심리적 외상을 회복한 미래의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 또는 지금 사건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엽서에 적어 함께 공유하고, 직원 송년 인사 메시지와 핸드벨 연주 영상을 전송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연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2021.12.20.~01.07. / 대전스마일센터)

## 수원



## 송년 프로그램

수원스마일센터는 2021년을 마무리하며 센터를 이용 중인 피해자 및 가족에게 힐링 달력 만들기 키트를 제공하고, 완성한 분들을 추첨하여 깜짝 선물을 드렸습니다. 달력을 만들면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그림을 그리며 2022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12.01.~12.31. / 수원스마일센터)

## 의정부



## 수고했어, 올 한 해도

본 센터를 이용한 대상자 분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며 신년소망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범죄피해자를 위해 애써준 유관기관 및 종사자 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감사장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고 힘든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2.12.18.~12.31. / 서울 브릭스씨어터, 의정부스마일센터)

## 춘천

크리스마스 기념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투게더

내담자들이 또 다른 내담자들을 위해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트리, 사탕 모양의 쿠키를 만들고 예쁘게 선물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눔의 기쁨과 행복감을 느껴봅니다. 깜짝 등장한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크리스마스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2020.12.17. / 스마일센터 2층)

## 서울서부



## 송년 프로그램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송년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신을 격려하고 타 이용자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었고, 작성한 희망 메시지를 이용해 센터 1층 나무를 장식했습니다. 한자리에 함께 모여 디저트를 만드는 달콤한 시간도 보냈습니다.  
(2021.11.24.~12.21. / 서울서부스마일센터 및 대상자 각 가정)

## 울산



## 송년 나눔 행사

울산스마일센터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을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예방 키트를 제작하여 나누어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1.12.~01. / 대상자 각 가정)

## 창원



## 송년 행사 웃음꾸러미

창원스마일센터는 크리스마스 맞이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전달하고 대상자 가정에 택배로 물품을 배송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2021.12.20.~12.31. / 창원스마일센터, 각 가정)

## 목포

편안한 나, 행복한  
티(Tea)내기!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대상자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송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송년 행사를 통해 본 센터에 대한 소속감, 이용 동기를 높여 범죄피해로 인한 후유증을 회복하고 적응을 도모하였으며, 대상자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한 감사를 나누며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11.~12. / 목포스마일센터 및 대상자 각 가정)

## 나들이

## 서울등부



## 봄꽃 맞이 걷기

센터 이용자 분들과 함께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한국의 집과 남산골 공원을 방문해 봄꽃 맞이 걷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봄꽃처럼 고운 말을 서로에게 나누며 함께 걸었으며, 한국의 집 별채에서 궁중 봄 다과상 체험도 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04.05. / 한국의 집과 남산골 공원)

## 제주



## 마음 담은 청

새해에는 바라는 '청'을 담아 레몬'청'을 함께 담그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을 담은 병에 새해 소망을 적고 소감을 나누며, 서로의 소망을 응원하는 마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2021.12.11. / 제주스마일센터)

## 광주



## 함께나기 프로그램

내담자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기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문화공간과 자연 속에서 힐링 나들이, ACC인문강좌, 향수 만들기 등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22.02.~09.(총 4회) / 지역 내 문화공간)



대전

‘2022 희망과 만나는  
우리들의 여행’ 희망  
여행



성금 다가온 가을을 만나고 누리기 위해 피해 사건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 가족과 함께 오월드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크고 작은 동물들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10.19. / 대전 오월드)

서울서부



여가 나들이

고궁 역사투어, 연주회, 전시회 등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나들이로 몸과 마음이 맑은 공기에 씻기는 느낌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서울서부스마일센터에서는 일상 속에서 활력을 충전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02.~12. / 지역 내 문화 공간)

창원



영화음악 콘서트 관람

내담자들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담자의 문화 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정서 함양을 통한 일상생활 회복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2021.08.21. / 성산아트홀 대극장)

전주

가정의 달, 따로 또 같이  
봄 소풍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단위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봄소풍 프로그램을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따로 또 같이 봄소풍 프로그램 참여자 모두 일상에서 벗어나 봄을 즐기고 체험하며 스스로를 치유했습니다.

(2022.05 / 내담자 가정, 오성한옥마을)

울산



입소자 나들이 프로그램

입소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들이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분기 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떼 목장, 주상 절리를 찾았으며 패브릭 아트 체험 등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입소자 분들과 담당자 모두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09.24. / 지역 명소)

창원



특별 야외집단 프로그램  
숲 체험

센터 내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야외 숲 체험 활동을 운영하여 정서 환기 및 일상생활 회복 촉진에 기여했습니다.

(2021.10.29. / 창원 편백 치유의 숲)

목포



일상을 up고 행복을  
key고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함평군 일대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04.20. / 함평군 일대)

심신치유 프로그램

서울동부



비즈공예 원데이 클래스

입소자 및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즈를 이용하여 액세서리 및 마스크 줄을 만드는 비즈공예 원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센터 이용자들과 마스크에 착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입소자 대상으로는 맞춤 액세서리 및 키링 제작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는 만들고 싶은 액세서리나 키링을 처음부터 직접 디자인하고 재료를 고르는 과정에도 참여해 더욱 자신에게 의미 깊은 액세서리를 만들었습니다.

(2022.01.26., 03.08. / 서울동부스마일센터 프로그램실)

인천



우리는 모두 꽃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시기. 인천스마일센터는 각종 키트를 제작해서 대상자의 집으로 발송했습니다. 대상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집에서 각종 키트를 만들어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마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꽃 프로그램'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2021.12. / 인천스마일센터 1층)

부산



베이킹 프로그램

내담자의 심신 회복 및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베이킹(케이크, 쿠키체험) 프로그램을 접근성이 좋은 한 베이킹 공방에서 진행했습니다. 20명의 내담자가 참석하여 직접 케이크와 쿠키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01.07. / 베이킹 공방)

광주



피어나기 프로그램

센터의 서비스 지원이 종결된 장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회복종결 프로그램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색감을 찾아가며 마음을 담아 이용자만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작품은 센터에서 한 달간 전시한 후 각자 소장했습니다.

(2022.04.~05. / 미술화실)



## 대구



## LCT 프로그램

센터를 이용하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심신 회복을 위한 LCT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하여 내담자의 트라우마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2022.02.08~11.08 / 대구스마일센터 3층 회의실)

## 대전

비대면 프로그램  
'그대가 꽃' 원예치유  
프로그램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향을 맡으며 원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로 인해 잃었던 통제감을 되찾고 약해진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03.21.~09.30. / 대전스마일센터)

## 춘천



## Re스마일데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고립감을 완화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에서는 '나만의 아로마 오일 향수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자신에게 집중해 보고 소감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함께라는 사실을 느껴보도록 했으며, 2부에서는 모닥불의 온기 앞에서 애도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2021.10.14. / 춘천스마일센터 2층)

## 전주



## 수공예 프로그램

재활용품을 활용한 공예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공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를 직접 만들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10.~12. / 전주스마일센터 2층 세미나실)

## 수원

비대면(zoom)  
오일파스텔 프로그램

그라데이션, 블랜딩 등 다양한 오일파스텔 기법을 활용하여 자연 풍경과 유명 명화를 그리면서 부드러운 오일파스텔의 질감을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11.05.~12.24. / 온라인 진행)

## 서울서부



## 치유견 프로그램

전문 치유견 핸들러의 진행에 따라 치유견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강아지를 가만히 안고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기운이 났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2.08.27. / 한국애견협회)

## 의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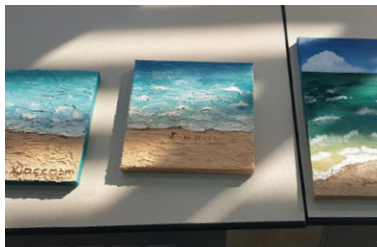


## 공예 프로그램

마크라메, 도예 등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마크라메란 다른 도구 없이 손을 이용하여 매듭을 엮어 만드는 작품으로 대상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어벨 마크라메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흙과 물레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그릇, 컵, 접시 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자개를 이용한 모빌 만들기과 가족을 이용한 팔찌, 지갑, 키링 만들기, 라탄을 이용한 채반, 바구니, 컵홀더와 티코스터를 만들며 일상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2021.10.25.~2022.08.26. / 비대면 진행)

## 창원



## 2022년 공예 프로그램

가족, 우드, 아로마, 도자기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 프로그램을 월별로 기획하여 진행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한 공예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긍정적 정서를 증진했으며, 새로운 집단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킴으로써 사회 복귀를 촉진했습니다.

(2022.01.~09. / 창원스마일센터 1층 회의실 혹은 비대면)

## 목포

손으로 만드는  
소소하고  
담백한 이야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전남 서부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오감 활용 및 마음 챙김을 통한 회복 프로그램을 매월 진행했습니다.

(2022.06.~10. / 지역사회 내 공방)

## 청주



## 이제는 smile

심리 지원을 종결한 대상자의 심리적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스튜디오와 연결하여 사진 촬영 및 기념 액자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05.19.~2022.10.13. / 지역사회 스튜디오)

## 제주

가족나들이: 쿠키  
클래스

파란 하늘이 높던 날, 멀리 바다가 보이는 부엌에 모여 달콤한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과일 등의 재료를 따고 손질하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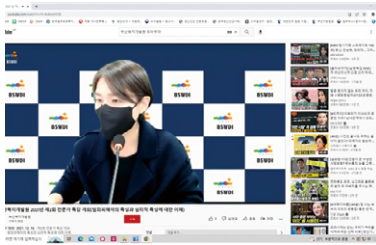
(2022.10.22. / 제주스마일센터)



교육 및 워크숍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온라인  
시민 강의



부산스마일센터 한경미 부센터장이 부산복지개발원을 찾아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2021.12.15. / 부산복지개발원 스튜디오)

인천

피해자 전담 경찰관  
대상 인천스마일센터  
센터장 초청 특강



피해자 전담 경찰관 대상으로 센터장 초청 특강을 운영했습니다. 본 특강은 범죄피해트라우마의 이해, 트라우마 관련 질병을 주제로 운영됐습니다.  
(2022.08.02. / 인천광역시경찰청 5층 중회의실)

대구

직원 내부 교육



센터 3층 회의실에서 트라우마 관련 직원역량 강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2022.01.24., 02.21. / 대구스마일센터 3층 회의실)

인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사례자문회의 및 교육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 및 개입,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사례 자문이라는 주제로 교육 및 사례자문회의를 운영했습니다. 장형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2021.12.06. / 인천스마일센터 1층 회의실)

광주

직원 소진예방 프로그램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무도마 만들기 공예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무 만족도를 향상하고 피해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10.15. / 나무공방)

대전

직원 소진예방 워크숍



소진되기 쉬운 센터 직원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고자 직원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2021.10.22. / 천상의정원 수생식물학습원)

전주

전주스마일센터 센터장  
내부 교육



피해자 지원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전주스마일센터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처방 약물', '양극성 장애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정신 병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2021.11.08., 2022.05.16 / 전주스마일센터 2층 세미나실)

수원

지역맞춤형  
사례자문교육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에게 보다 심층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례자문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서울EMDR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과 국제협회인증 EMDR 트레이너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2022.08.24. / 온라인 진행)

의정부

개소 5주년 기념  
심포지엄



의정부스마일센터는 개소 5주년을 맞아 종사자들의 치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실시하였습니다. 김현수 교수와 박경 교수를 초청하여 '자살 및 자해시도에 대한 개입'과 '자기연민 양육'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센터의 설립을 기념하는 한편 효과적인 심리 지원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09.20. / 의정부스마일센터)

전주

직원 워크숍



직원 워크숍을 실시하여 센터 구성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2022.07.29 / 익산 고스락 이화동산)

수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법률교육 참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서 제공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주제로 한 법률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필요한 피해자분들에게 제공드릴 수 있는 유용한 법률 정보를 배울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스마일센터에서는 추후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을 연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07.18. /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청주

미디어를 활용한  
마음챙김 명상



'미디어를 활용한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주제의 내부 교육을 진행하여 피해자 지원으로 누적된 센터 직원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이완하는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센터 이용 대상의 심신 회복을 위한 명상 기법의 활용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2022.05.~11. / 청주스마일센터 1층 강당)



창원



직원 워크숍

창원스마일센터 종사자 8명과 함께 워크숍을 떠나 직원들이 색다른 환경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11.22. / 창원의 집, 돌섬)

간담회 및 네트워크

서울동부



살인피해 유가족 추모제

매년 바람이 차가워질 때쯤이면 살인피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추모제를 열고 유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 추모행사를 통해 피해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2021.11., 2022.09. / 서울동부스마일센터 지하 강당)

부산



부산스마일센터  
운영위원회

부산스마일센터 운영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2022.09.30. / 부산스마일센터 프로그램실)

목포



광주-목포스마일센터  
연합 워크숍

목포스마일센터는 광주스마일센터와 연합 워크숍을 개최하여 변호사를 초청한 법률지원 교육과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22.09.29. / 목포스마일센터)

부산



동래경찰서 사례회의  
참석

부산 동래구 관내에서 일어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례회의를 실시했습니다.  
(2022.07.20. / 부산동래경찰서 회의실)

인천



인천광역시경찰청  
간담회

인천광역시 경찰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센터의 사업을 소개하고 피해자 지원 업무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2022.05.03. / 인천스마일센터 1층)

광주



광주경찰청·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 간담회

2013년 12월 광주경찰청과 광주스마일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강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주스마일센터, 광주경찰청 관계자와 5개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참석하여 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업무 협조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022.04.21. / 광주스마일센터 3층 세미나실)

대구



스마일센터 운영위원회

스마일센터 운영 위원들과 함께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센터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2022.06.22. / 스마일센터 3층 회의실)

대전



공군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간담회

공군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서 대전스마일센터에 방문하여 생활관 시설 등을 둘러보고, 스마일센터 주요 사업 및 우수지원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군 피해자 지원의 특수성과 향후 효율적인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2022.06.20. / 대전스마일센터)

대구



대구방화사건 사례회의

대구스마일센터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방화사건 사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022.06.15. / 수성경찰서)

대전



대전지방경찰청 피해자  
보호계 간담회

대전지방경찰청의 각 경찰서 피해자 지원 담당 경찰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경찰의 위기개입 상담 후 스마일센터 동행 방문 연계 등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업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2.02.22. / 대전스마일센터)

춘천



도내 경찰서 방문 홍보  
간담회

피해자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경찰서 방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21.04.21., 05.25. / 춘천경찰서, 원주경찰서)



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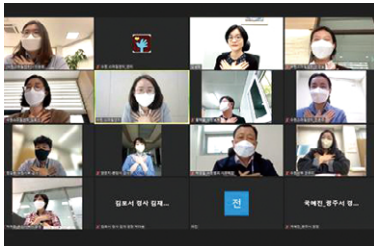
육군 35사단  
양성평등상담관 간담회



국방부와 법무부의 MOU 체결에 발맞추어 전북지역에 있는 35사단 양성평등 상담관 간담회를 추진하여 양 기관의 지원 절차 등을 공유하고,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22.01.14. / 전주스마일센터 2층 세미나실)

수원

피해자 전담경찰(지원, 보호) 교육 및 간담회



경기남부지역 피해자 전담경찰(지원, 보호)과 협력을 강화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공고히 하고자 교육 및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12명이 참석하여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04.20. / 수원스마일센터)

서울서부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간담회



법무부와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마일센터를 안내하고 업무협조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2021.10.28. / 서울서부스마일센터)

의정부

경기북부경찰서 및  
유관기관 간담회



경기북부경찰서 및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효율적인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 기관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무자 간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21.01.18.~05.30. / 의정부스마일센터 및 유관기관)

청주

법률홈닥터 간담회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법률홈닥터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22.03.29. / 청주스마일센터 센터장실)

울산

2021년 강력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경찰)  
간담회



울산스마일센터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의 일환으로 울산 각 구군 5곳의 범죄피해 전담 경찰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21.12.08. / 울산스마일센터)

제주

피해자 전담 경찰  
간담회



제주스마일센터는 경찰서와의 연계를 촘촘히 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전담 경찰관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2021.11.30. / 제주스마일센터 3층)

목포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목포스마일센터  
업무협의 간담회



목포스마일센터는 전남경찰청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과 함께 범죄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04.28. / 목포스마일센터)

목포

전남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목포스마일센터  
업무협의



목포스마일센터는 전남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와 함께 범죄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06.17. / 목포스마일센터)

업무협약

인천

인천스마일센터·  
인천장애인권익옹호  
기관 협약식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범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상호 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 장애인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2.08.05. / 인천스마일센터 1층)

춘천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업무협약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춘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06.24. /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업무협약

스마일센터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진료 연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범죄피해자의 심리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스마일센터는 김태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오영미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현민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1.11.16., 2022.06.24., 09.30. / 지역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서부



서대문경찰서 업무협약  
체결

서울서부스마일센터와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05.04. / 서울서부스마일센터)

창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통영범피 업무협약

창업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통영범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장에는 창원스마일센터 센터장,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통영범피 사무처장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을 향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2022.09.19. / 거제시청 별관 3층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제주



제주변호사회 업무협약

제주스마일센터는 제주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1.11.30. / 제주스마일센터 3층)

청주



청주시 흥덕정신건강  
복지센터·서원정신건강  
복지센터 업무협약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복합 문제(정신과 문제 등)를 지닌 대상자에게 센터 심리지원이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한 후속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1.12.15., 2022.01.18../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



울산광역시노인보호  
전문기관 업무협약

울산스마일센터는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범죄 피해자 및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협약했습니다.

(2021.12.21. /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전주



전라북도 23개소 전광판  
홍보

전주스마일센터는 전라북도청에 의뢰하여 대학병원, 버스터미널, 공공기관 등 23개소 전광판에 스마일센터 홍보영상을 3개월 동안 송출했습니다.

(2022.07.~10. / 전라북도 내 23개소)

청주



CJB 청주방송 홍보

청주지역방송 CJB의 모닝와이드 초대석에 김태범 센터장이 출연하여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웃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스마일센터의 역할 및 지원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2022.04.15. / 청주방송) \*출처: CJB홈페이지

울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징검다리 업무협약

울산스마일센터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징검다리와 성폭력 및 강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협약했습니다. 이밖에도 울산과학대학교 학생상담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하게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06.21. / 울산스마일센터)

창원



경상남도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업무협약

창원스마일센터는 장애인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02.21. / 비대면)

청주



대중교통 홍보

청주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 10개 노선을 선정해 내부 출입문 상단에 안내문을 부착함으로써 센터 지원 업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주스마일센터는 이 외에도 '청주시민신문'의 지면을 활용하여 스마일센터의 지원 업무를 홍보하는 등 사업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01.~12. / 청주 시내버스)

울산



울산대학교 마음약국  
홍보бус 운영

울산스마일센터는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마음약국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일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2.09.20. / 울산대학교)

## 제주



## 정신건강박람회 참석

제주도 내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유관 기관이 모인 정신건강박람회에 제주스마일센터도 참여했습니다. 컬러링 카드로 '희망 나무'를 가득 채우고, 스마일이 그려진 노란 풍선을 나누어 주며 범죄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민들과 함께 기원했습니다.

(2022.09.17. / 제주탐동광장)

## 수상

## 인천



## 법무부장관 표창장 수상

인천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자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2021.11.30. / 법무부)

## 수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감사패 수여

수원스마일센터 심리지원팀장은 서울동부 스마일센터와 수원스마일센터에서 약 10년간 장기근속하며 피해자 지원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2022.04.21. / 정부과천청사)

## 제주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  
기념 플로깅

제주스마일센터와 대학생 서포터즈의 창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주도의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이호테우 해수욕장 인근에서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2022.07.19. / 이호테우 해수욕장 인근)

## 전주

구남숙 사례팀장 법무부  
장관상 수상

전주스마일센터 구남숙 사례팀장이 2021년 인권대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2021.11.30. / 전주스마일센터)

## 목포

전라남도경찰청 감사장  
수상

목포스마일센터 염승희 부센터장은 지역 내 이슈화된 염전 관련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남도경찰청에서 감사장을 수상했습니다.

(2022.04.06. / 목포스마일센터)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 스마일센터 버스 옥외 광고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시내버스 10대, 광역 버스 6대에 버스 옥외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스마일센터 버스 옥외 광고 시안은 2020 스마일센터 포스터 및 슬로건 공모전 당선작들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강남, 압구정, 잠실, 종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판교, 일산, 동탄 등 수도권까지 돌아다니며 스마일센터를 홍보하였습니다.

(2022.10.~11.)

## 전문역량개발교육 및 사례자문교육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국 스마일센터 종사자 대상 온라인 전문역량개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지원팀, 심리지원팀, 행정지원팀에 각 1회씩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국통합형/지역맞춤형 사례자문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센터 모두 사례자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05.31. 사례지원팀 교육 / 2022.09.27. 행정지원팀 교육 / 2022.11.09. 심리지원팀 교육 / 2022.01.~2022.12. 전국통합형, 지역맞춤형 사례자문교육)

## 스마일센터 정기회의

전국 16개소 종사자들이 모여 스마일센터의 현안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표준 모델을 논의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 정기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06.21. 부센터장 회의 / 2022.8.25. 사례지원팀 회의 / 2022.09.06. 부센터장 회의 / 2022.09.22. 심리지원팀 회의 / 2022.10.27. 행정지원팀 회의)

## 제7회 스마일센터 심포지엄 '범죄피해 트라우마와 외상 후 성장'

7번째로 진행된 스마일센터 심포지엄에서는 장은진 대전스마일센터장님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실제 사례를 함께 나누어주셨으며 김태경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님이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2.11.28.)

##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및 스마일센터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해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은 크게 강력범죄피해자 지원 업무와 관련된 스마일지원시스템과 스마일센터 종사자의 업무에 관련된 그룹웨어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여 업무 편의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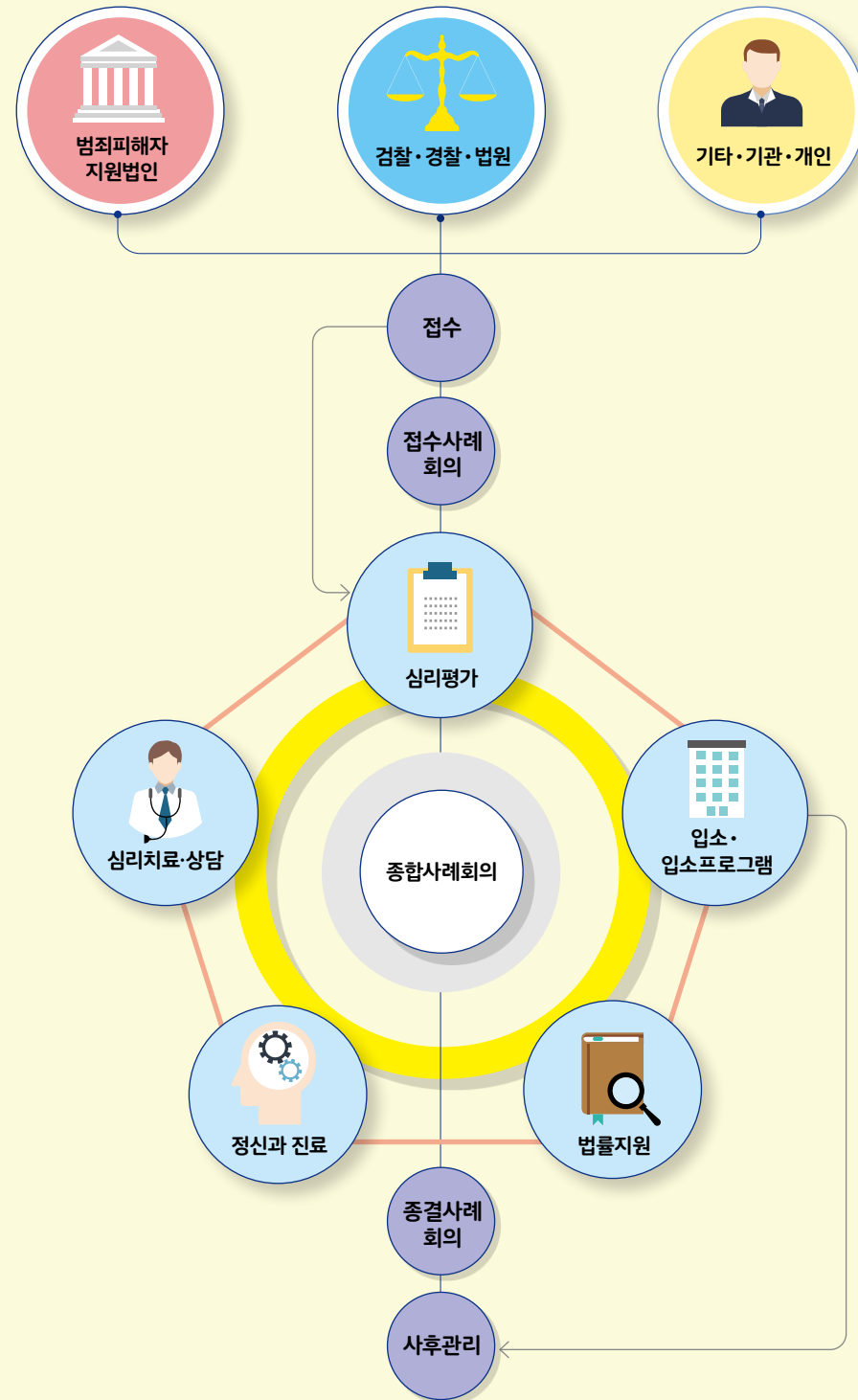
(2022.04.~12.)

※ 모든 행사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였습니다.

※ 지면의 한계로 전국 스마일센터의 모든 소식을 실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 스마일센터 이렇게 이용하세요!



## 전국 스마일센터 안내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서울 마포구 성산로8길 6(성산동 58-6)  
T. 02-333-1295

### 서울동부스마일센터

서울 송파구 풍성로22길 37(풍납동 244-2)  
T. 02-473-1295

### 서울서부스마일센터

서울 마포구 성산로8길 6(성산동 58-6)  
T. 02-332-1295

### 인천스마일센터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272(문학동 169-13)  
T. 032-433-1295

### 대전스마일센터

대전 서구 갈마로 139(갈마동 1490)  
T. 042-526-1295

### 전주스마일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87  
(인후동2가 1577-35)  
T. 063-246-1295

### 광주스마일센터

광주 동구 구성로 163(충장로 5가 81-3)  
T. 062-417-1295

### 목포스마일센터

전남 목포시 용당로 300(용해동 354)  
T. 061-277-1295

### 제주스마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1길9  
(이도일동 1259-13)  
T. 064-742-1295

### 수원스마일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8  
(세류동 255-3)  
T. 031-235-1295

### 의정부스마일센터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78  
(의정부동 205-5)  
T. 031-841-1295

### 춘천스마일센터

강원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70-67  
(거두리 933-7)  
T. 033-255-1295

### 청주스마일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112  
(율량동 2225)  
T. 043-218-1295

### 대구스마일센터

대구 수성구 만촌로 148(만촌동 427-33)  
T. 053-745-1295

### 울산스마일센터

울산 중구 성안로 218(성안동 403-6)  
T. 052-707-1295

### 부산스마일센터

부산 금정구 금샘로 371  
(구서2동 1026-12)  
T. 051-582-1295

### 창원스마일센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902번길 14  
(자은동 904-14)  
T. 055-546-1295

